



소개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

워치메이킹 역사를 써 내려가는 혁신의 중심지,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몰입형 전시회

주요 정보:

- **정확성의 발상지:** 발명가 정신을 이어온 예거 르쿨트르의 이야기
- **3 가지 신제품:** 지난 4 월,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된 2026 년 컬렉션과 함께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 **몰입형 체험:** 실시간 시연, 교육 프로그램 및 독창적인 얼음 조각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 공간

올 9 월, 예거 르쿨트르는 상하이에서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토대를 마련한 발레드주의 깊은 영향력을 조명합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 전시회는 하이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정확성을 추구해 온 예거 르쿨트르의 190 여 년에 걸친 독창성과 발명가 정신을 되돌아봅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은 2026 년 9 월 10 일부터 23 일까지 상하이 장위안(Zhang Yuan W4, Lane 188, Maoming North Road, Jing'an District, Shanghai)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성과 문화적 세계관을 소개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정확성과 크로노메트리, 정확성과 투르비용, 정확성과 다축 투르비용, 정확성과 컴플리케이션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정확성을 향한 여정의 시작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가 써 내려온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감상하며 다음과 같은 풍부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히브리스와 여성용 타임피스 출시, 새로운 리베르소 에나멜의 아시아 지역 프레젠테이션, 지난 4 월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한 2026 년 컬렉션
- 핵심 워치메이킹과 예술 공예 기술 시연
- 자연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여성용 타임피스 캡슐 컬렉션, 발레 데 메르베이유 전용 공간
- 탁월함이 돋보이는 20 세기 중반의 상징적인 빈티지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는 더 컬렉터블 전용 공간
-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y) 콘셉트로 연출한 애트모스 클락과 워치메이킹 오브제 전용 갤러리
-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HPG(High Precision Guarantee) 싼을 소개하는 전용 공간
- 체험형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 아틀리에 앙투안에서 진행하는 *프리시전 파이어나어* 체험 프로그램

특별한 환경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성

예거 르쿨트르의 역사는 16 세기, 위그노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스위스 쥐라 산맥의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름답지만 거친 자연, 울창한 숲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창의성과 혁신 정신으로 거듭났고, 1833 년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생산 도구와 최초의 통합 매뉴팩처 설립, 혁신적인 공정, 전례 없는 컴플리케이션의 탄생 등 끊임없는 발명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430 건 이상의 특허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거 르쿨트르는 82 개의 아틀리에와 69 개의 시그니처 노하우를 포함한 108 가지 공예 및 235 가지 제작 기술을 한곳에 통합한 진정한 매뉴팩처 아틀리에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레드주의 수려한 자연과 기후 속에서 형성된 장인들의 기술력은 수많은 발명으로 이어졌고, 워치메이킹 역사의 흐름을 바꾼 동력이 되었습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 – 네 가지 챕터에 담긴,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

방문객들은 특별히 제작된 조형물을 통해 발레드주의 얼어붙은 겨울 풍경과 숲을 떠올리게 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에 들어서게 됩니다. 얼음으로 조각한 경이로운 소나무는 매뉴팩처를 탄생시킨 장소와



사람들, 발명품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몰입형 전시의 중심을 장식합니다. 오감을 깨우는 시네마 기술을 활용한 이번 쇼는 물리적 효과와 공간 연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정확성을 향한 예거 르쿨트르의 여정을 담은 네 가지 챕터는 각각 워치메이킹의 핵심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집중 조명합니다.

정확성과 크로노메트리: 크로노메트리는 정확한 시간 측정을 의미합니다. 정확성에 관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의 기계식 칼리버를 완성하기까지의 여정과 도전 과제를 다룹니다. 19 세기 르쿨트르 앤 씨는 해양 탐사를 위한 크로노미터 인증 포켓 워치를 생산했으며, 이후 항공 분야는 물론 현대의 탐험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정밀 기기인 지오피직 크로노미터를 개발했습니다. 2026 년 4 월에 출시된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COSC 와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HPG 쉴을 모두 획득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확성과 투르비옹은 정확한 시간 측정에 필수적인 등시성을 지닌 제어 시스템, 즉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946 년, 최초의 투르비옹 칼리버인 칼리버 170 을 개발했습니다. 같은 해, 칼리버는 뇌샤텔 국제 관측소 대회에서 하루 오차 ± 1 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정교한 투르비옹 구조와 헤어스프링 디자인을 개선해 왔습니다. 칼리버 978 은 2009 년, 제 1 회 현대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26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투르비옹 점핑 데이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확성과 다축 투르비옹: 전통적인 투르비옹은 손목시계 위치에서 중력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 위함이 아닌, 포켓 워치를 위해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2004 년, 예거 르쿨트르는 3 차원 회전을 구현하는 그랑 메종의 첫 번째 다축 투르비옹인 자이로투르비옹 1 을 선보이며 크로노미터 정확성을 향상하고 이 분야를 이끄는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 이후 매 세대에 걸쳐 엔지니어링과 소형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왔습니다. 특히 2026 년에 출시된 마스터 히브리드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는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티타늄 케이스 세 개를 탑재한 3 축 투르비온 구조를 기반으로 98%의 위치에서 중력의 영향을 상쇄합니다.

정확성과 컴플리케이션: 시, 분, 초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플리케이션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여, 제어 시스템으로 향하는 안정적인 동력 공급을 방해해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7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배럴과 기어 트레인을 통해 시간 측정 기능과 컴플리케이션을 분리함으로써 등시성을 유지하는 듀오미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랑 메종은 정교한 칼리버와 미닛 리피터 분야에서 쌓아 올린 150 년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칼리버 362 와 함께 2026 년에도 정확성과 음향 성능, 울트라 싿 구조를 한층 더 발전시키며 오랜 여정을 이어갑니다.

장인 정신을 향한 찬사

방문객들은 전시 주제의 핵심인 메티에 라르™ 기술들에 초점을 맞춰 위치메이킹의 장인 정신과 예술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발레 데 메르베이유: 여성용 타임피스에 초점을 맞춘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찬사를 보내는 발레 데 메르베이유는 예거 르쿨트르의 자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계승되는 에나멜링, 인그레이빙, 켄세팅과 같은 전통적인 장식 공예 기법을 집중 조명합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모델: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하는 4 가지 독창적인 작품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진귀한 색감과 불의 예술을 통해 도시의 정신을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모든 작품은 19 세기 거장의 정교한 비전이 깃들어 있습니다.

실시간 시연: 매뉴팩처의 숙련된 장인들이 구현하는 4 가지 하이엔드 위치메이킹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장인들과 직접 제작 기술에 대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핸드 베벨링 및 에나멜링 시연은 파인 위치메이킹 이면에 숨겨진 정확성과 정교한 적용 과정을, 페를라주 시연은 장식 마감의 예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컴플리케이션 워크숍의 위치메이커가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조립하면서 전통적인 플랫폼 투르비온부터 예거 르쿨트르의 선구적인 다축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르비용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정밀성의 공간

HPG 실험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예거 르쿨트르 시계의 정확성과 품질을 인증하는 새로운 HPG 썰의 핵심 단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람객들은 충격 테스트, 각기 다른 고도와 다양한 위치 및 온도 급변으로 인한 압력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 엄격한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HPG 썰은 정교한 마감뿐만 아니라 시계의 높은 정확성까지 보증합니다. 특허받은 프로토콜을 통해 일상 생활 중 착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립된 시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한 뒤 인증을 부여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정확도 외에도 관람객을 시계 장식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 아름다운 디자인과 유서 깊은 워치메이킹 본연의 기능적 목적까지도 집중 조명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워치메이킹에 담긴 정교함과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트모스와 워치메이킹 오브제에 담긴 미스터리: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에트모스 클래식, 에트모스 레귤레이터의 예술적 해석,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새롭게 공개한 메모박스 트래블 클락 바이 마크 뉴슨 등 그랑 메종의 주요 에트모스 모델을 선보입니다.

정확성을 향한 체험형 여정: 워치메이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틀리에 앙투안은 전시장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정확성을 주제로 한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역동적인 인터랙티브 워크숍에서는 예거 르쿨트르 전문가들의 가이드에 따라 워치메이킹 핵심 기술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초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및 입장료:

‘밸리 오브 인벤션’ 전시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상하이 장위안에서 개최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WeChat mini program link](#))으로 사전 등록 또는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